

News

한은, 5월 기준금리 인상이나 동결이나... 이창용 총재의 첫 의사봉은

머니S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0.5%p 올리는 빅스텝 단행으로 오는 26일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통위에 이목 집중... 한미간 금리 격차가 부담으로 작용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기준 4.8% 기록... 다만 가계대출 4개월 연속 감소 등 고려할 때 점진적 인상 기조를 시장에 전달할 가능성도 존재

주담대 금리 13년 만에 7% 돌파할 듯...예·적금 금리도 오른다

이데일리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지난 6일 기준 연 4.02~6.59% 기록... 금리 상단이 4개월 만에 1.61%p 급등
은행들, 올해 주담대 최고금리가 연 7%대 진입할 것으로 전망... 다만 변동금리 차주의 이자 부담이 23조원 이상 불어난다는 점이 우려

인터넷은행 대출 증가세, 한달새 1조1279억 늘어

동아일보

인터넷은행 3사의 가계대출 잔액, 지난달 말 기준 총 37조 2,718억원으로 집계... 3월 말 대비 1조 1,279억원 증가... 넉 달째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공격적 영업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중심으로 수요 늘려... 반면 5대 시중은행은 주식 등 자산 시장 얼어붙으며 신용대출 감소 영향으로 지속 감소 중

20대 2금융 대출·다중채무 증가... "취약차주 우려"

데일리안

20대,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대출 문턱 높이면서 은행권 20대 대출 규모가 4,192억원으로 올해 3월 말 기준 전년동기대비 감소... 같은 기간 2금융권은 증가율 1.0%로 높아...
다중채무자 수도 20대의 경우 동기간 5,000명 추가 증가... 취약 차주될 가능성 있어 건전성 우려 제기

보험사, 상반기 자본확충만 4조... '사상 최대'

한국경제

보험사들, 올 들어 자본확충 금액 총 2조 9,000억원에 달해... 유상증자 6,000억원, 자본성증권 2조 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 기록
회사별로는 NH농협생명의 자본확충 금액이 가장 많아... 한화손보는 자본성증권 2,500억원 발행해 자본확충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생보사 투자 실적 '역성장'... 자산 매각 공여지책 '후폭풍'

데일리안

국내 23개 생보사, 투자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총 37조 4,277억원으로 전년대비 0.6% 감소...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자산 매각의 후폭풍 영향 때문
금융자산을 대거 처분하면서 투자 실적은 방어하나 잠재적인 성장 동력은 떨어진다 분석... 내년 IFRS17 도입으로 수익성 개선에 열 올리는 중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 고공행진...업체간 격차 2배

이데일리

증권사들, 신용거래용자 이자율을 인상하거나 추후 진행하겠다는 계획 내놓아... DB금융투자, 오는 6월부터 신용거래용자 금리를 0.2%p 인상하기로... 유안타증권도 0.25%p인상
대신증권, 이달 6일부터 이자율 상향...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연이은 인상 중... 회사별 이용기간 및 고객 등급에 따른 천차만별

수출입은행 두고 국내 증권사 한국물 '격돌'...KB·한국 낙점

연합인포맥스

한국수출입은행 둘러싼 국내 증권사들의 한국물 경쟁 격화 중... 5월 유로화 및 달러화 채권 발행 겨냥한 주관사단 선정 절차에 돌입
이번달 외화채 발행을 위한 주관사로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선정... IB 및 중소형사들도 관심가지며 DCM 해외진출 가능성 타진 중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